

3년 만에 바뀐 여야... ‘여대야소’ 민주, 입법 속도전

특검법·검사장계법 우선 처리
“협치와 소통 강조” 목소리도
국힘, ‘입법 독재’ 여론전 주력
당내 쉐신론 분출 등 ‘후폭풍’

3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여야의 위치를 맞바꾸며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장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장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졌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기로 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법안인 만큼 선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야당과의 협치·소통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여당이 된 만큼, 거대 야당 시절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 여당이 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수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여야가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 전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진 탓에 사실상 남은 카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여론을 더 의식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은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였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 속에 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쉐신론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

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혹은 비대위 체제 연장,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충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성공한 대통령·정부 만들자”... 선대위 해단식

참석자, 국민에 인사로 마무리
“겸손한 자세로 헌신 약속할 것”

6·3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는 국회의원, 선대위 관계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국가 경영을 책임져주시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 대통령 정도의 효율적 리더십이면 단시일 내에 나라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진심으로 모두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께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함께 써달라”며 “성공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땀뿜 뭉쳐서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단식은 참석자 전원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정부’ 여당 첫 원내대표 13일 선출

각축전...12~13일 권리당원 투표
서영교·김병기·김성환·조승래 등
입법 과제 추진·야당과 협상력 주목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식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명’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

온다.

동시에 172석의 거대 야당의 입법 과제를 이끌 추진력과 야당과의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선수·가나다순)으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있다.

출마가 유력한 이들 중 유일한 여성인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경북 본부장을 맡아 보수 텃밭인 TK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 (신친명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꼽힌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이번 대선에선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역시 신명계로 분류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해왔다. 비교적 계파색이 얇은 인사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친문’ (친문재인)계인 한병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준석 “경제·민생위기 극복에 진영 따질 여유 없어”

“국민만 바라보고 손 맞잡아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는 4일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자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졌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

나 챙겨가겠다”며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는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주신 분들의 응원과 믿음이 덕분이었다”며 “함께 걸은 시간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